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비명시적 언어규칙에 대한 습득 분석*

최정아**

– 차 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제2언어 습득 교수법
 2.2. 비명시적 언어현상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3.2. 연구 도구 및 절차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4.2. 설문2-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4.3. 설문3-추상명사의 가산성
 4.4. 설문4-복합명사의 병렬구조
5. 결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1685).

**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부 강사. upgrade-3@hanmail.ne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어의 명시적 문법규칙이 없는 언어항목에 해당하는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추상명사의 가산성, 복합명사의 병렬구조에 관한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언어 발달단계[2]에 따른 습득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상, 하 집단으로 나누고 관련 비명시적 언어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습득 정도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어의 명시적 언어 규칙이 없는 언어항목에 대해서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상위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아서 하위집단 보다 더 잘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통계 분석을 통해 상위와 하위집단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수준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학습 수준이 높은 단계일지라도 비명시적인 언어항목에 대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명시적인 언어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 항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 자료는 비명시적 언어 현상에 대한 효과적 교수법 마련에 좋은 발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주제어: 비명시적 언어현상,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추상명사의 가산성,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2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언급하는 '발달단계'는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배워나가는 언어 습득 단계를 의미함을 밝힙니다.

1. 서론

인간이 적정시기를 지나서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를 완전히 습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습득에서 모국어 화자는 일정 시기가 되면 유사한 발달단계를 거쳐 완전한 수준의 언어능력에 도달하는 반면에 제2언어 학습자 대부분은 원어민 성인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2](Herschensohn 2000). 따라서 언어교육 측면에서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어습득의 특정 언어항목이 명시적 언어규칙을 가지는 경우, 제2언어 학습자는 효과적으로 해당 언어항목을 보다 정확하게 잘 습득하는 체계적 학습(systemic learning)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언어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언어현상의 경우 단순히 예제를 통한 제한적 학습(examplar learning)만을 하게 되어 언어습득 과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비명시적 언어현상은 영문법에서 명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현상이다. 따라서 제2언어 학습자들은 비명시적인 언어항목에 대한 이상적인 습득의 어려움을 느껴, 목표어의 높은 습득 단계로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점을 착안하여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제2언어 습득의 비명시적 언어현상에 대한 습득 정도를 조사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가 명시적 언어규칙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별로 나타나는 습득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명시적 언어 항목인 시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선행되었다(박수지 2015, 신은자 2015, 최공주2015). 그리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어 관사 습득과 관련된 여

2 Herschensohn(2000:189)는 모국어와 제2언어 습득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모국어 습득의 초기단계는 화자가 어떠한 정해진 문법 값을 가지지 않는 상태이지만 최종단계에서 계획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문법습득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제2언어 습득은 학습자가 초기단계부터 모국어의 문법 값을 가지고 자발적, 임의적 습득이 가능하지만 최종단계에서는 완전한 모국어 문법만큼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러 연구들도 선행되었다(권유진 2014, 이종근 2009, 최샛별 2022). 또한 한국 영어학습자의 영어 추상명사의 가산성 판단에 관한 선행 연구(김은주 2008)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비명시적인 언어 영역에 해당되는 다양한 항목들의 종합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이지 않은 언어현상에 대한 노출과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주장은 최정아(2021)의 현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인 영어 교과목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기인한다. 교사가 비명시적 문법 교육을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지도하는가의 질문 답변으로 '가끔 그렇다'(응답률 66.6%)와 교사가 비명시적 언어 현상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가의 질문 답변으로 '가끔 그렇다'(응답률 5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 이것은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환경에서 비문법적인 언어현상에 대한 명시적인 문법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연구의 미비한 상태를 보완하고자 연구자는 영어의 명시적인 규칙이 없는 언어현상 중에 구체적으로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추상명사의 가산성, 그리고 복합명사의 병렬구조에 관한 네 가지의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보이는 습득 정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 연구는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습득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류를 보이는 문법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 마련에 선행연구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명시적인 규칙이 없는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에 대한 습득 정도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인 대학생들의 언어 발달 정도에 따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별 습득 정도와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3 최정아(2021)의 중, 고등학교 현직 한국인 영어교사들의 비명시적 언어현상에 대한 교수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응답 선택지는 총 4가지 유형 ①그렇지 않다 ②가끔 그렇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어 습득의 발달단계가 높은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은 낮은 학습자들보다 비명시적 규칙의 언어 항목들을 더 잘 습득하는가?

둘째,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습득의 발달단계에 따라 비명시적 규칙의 언어 항목들 중에 습득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제2언어 습득 교수법

제2언어 습득의 교수법으로 명시적 방법(explicit approach)과 묵시적 방법(implicit approach)이 대표적이다. 문법 교육에서 명시적 교수법은 언어 학습자에게 해당 언어 항목에 대한 규칙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학습자가 그 규칙을 여러 예시에 적용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해당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다. 묵시적 교수법은 언어 학습자가 영문법의 여러 예시들을 접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해당 문법 규칙을 터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적으로 영문법 학습에서 언어 학습자들은 주로 명시적 방법으로 목표어의 해당 문법을 습득한다. 하지만 제2언어 습득의 영문법 교수법에 대한 여러 연구의 결과는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을 조화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2언어 교수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Ellis 1993, Hulstjin & Graff 1994).

그런데, 특정 문법 항목을 명시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제2언어 학습자들은 그 문법 항목에 대한 높은 단계의 인지적 습득이 일어날 수 없고 결국 그 항목의 습득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의 연구(Ko, H, et al 2015, Lee 2015)들도 있다. Ko, H, 그외(2015)는 모국어에 관사가 없는 제2언어 학습자들의 관사 사용을 살펴봤는데, 학습자들이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관

사 유형의 경우에는 한정성과 특정성의 의미 자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불안정하게 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Lee(2015)는 한국의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오용 표현을 분석하였는데, 영어 습득의 발달단계가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이 영어 어휘소(lexeme)와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어휘소 사이의 개념적 불일치로 인한 학습자의 오류 발생을 연구하였다. 실제로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비명시적 언어현상을 완전히 습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Dekeyser(2003), Ellis(2006), Moeller & Ketsman(2010)와 같은 학자들은 특정 언어항목에 대하여 분명한 문법규칙이 없다면 제2언어 학습자들은 완전한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하여 해당 문법을 연상하는 학습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2. 비명시적 언어현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명시적인 언어규칙이 없는 네 가지 언어항목인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추상명사의 가산성', '복합명사의 병렬구조'에 대해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습득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관사 'the'는 고유명사의 의미적 범주에 따라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경우(강, 사막, 바다, 해양, 산과 같은 자연물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the'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잘 알려진 산, 도시 부근의 만(bays), 해변, 공원, 도시나 거리 등 주로 인공물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또는 'the'를 선택적으로 사용(언덕, 다리, 도로, 궁궐, 홀, 호텔, 극장 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라고 해도 the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는 불규칙한 경우, 총 세 가지 경우가 아래 (1)처럼 분류된다.

(1) a. 'the' 사용하는 경우 – the Sahara (Desert), the Gobi Desert

(사막의 나타내는 이름)

b. ‘the’ 사용하지 않는 경우 – London, New York, Washington
(도시를 나타내는 이름)

c. ‘the’ 사용이 불규칙한 경우 – London Bridge vs. the Golden Gate Bridge(USA) (다리를 나타내는 이름)

이런 점을 볼 때,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은 고유명사가 같은 의미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사 ‘the’ 쓰임이 선택적이라 불규칙하게 그 언어 현상이 일어나므로 명시적인 규칙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영어 물질명사 ‘water’, ‘salt’, ‘rice’, ‘flour’는 대부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로 규정한다. 물질명사의 종류로 ‘fruit’(과일)과 ‘food’(음식)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무관사의 단수 형태로 쓰인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나 음식을 의미할 경우에는 아래 (2)b처럼 복수 지표로 쓰이게 된다.

(2) a. What is your favorite fruit/ food?
(좋아하는 과일/음식은 무엇입니까?)

b. The doctor advised me to eat a wide variety of fruits and healthy foods.
(의사는 나에게 더 많은 종류의 과일과 건강한 음식을 권했다.)

그러므로 영어의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취급 문제는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예가 없는 것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제대로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 항목이다.

세 번째 영어의 추상명사의 가산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어의 추상명사는 보통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단어들은 ‘advice’(충고), ‘furniture’(가구), ‘information’(정보), ‘permission’(허가),

‘progress’(진행) 등이 있다. 실제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영어의 ‘evidence’를 우리말의 ‘증거’가 가지는 의미적 특성으로 판단해서 헤아릴 수 있는 명사로 잘못 이해하여 ‘many evidences’, ‘some evidences’, ‘a few evidences’와 같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영어의 모든 추상명사가 불가산명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injustice’(불의)는 ‘justice’(정의)의 반대 의미로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다음 (3)과 같은 표현에서는 ‘injustice’가 가산명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3) Black Americans are still faced with many injustices in America.
(미국 흑인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부당한 일에 직면한다.)

이처럼 영어의 추상명사는 무조건 가산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규칙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네 번째 복합명사의 병렬구조에 관한 것으로 음식과 식재료 명칭의 병렬구조 어순 즉 복합명사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 한국어는 복합명사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커피와 관련된 용어로 ‘설탕과 우유’를 ‘우유와 설탕’으로 어순을 바꾸어 말해도 어색하지 않다. 물론 영어에서도 ‘bread and milk’와 ‘milk and bread’ 표현처럼 명사 병렬구조의 어순이 자유로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 음식 및 식재료 명칭에 관한 병렬구조 어순은 두 가지 명칭 중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4)a 와 만약 두 개체가 서로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다면, 음성적 특성을 고려한 것에 따라 (4)b처럼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4) a.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빵과 버터’ ‘bread and butter’/ *‘butter and bread’
‘생선과 튀김’ ‘fish and chips’/ *‘chips and fish’
b. 음성적 특성을 고려한 것-
‘salt and pepper’(소금과 후추)
‘apples and pears’(사과와 배)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어순과 관련해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습득 과정에서 의미적, 음성적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습득이 쉽게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제2언어 습득의 비명시적 언어현상에 대한 습득을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언어 습득에서 명시적 언어규칙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단계별로 나타나는 습득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에 따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경북 소재 K대학의 신입생 대상 영어 교양강좌의 학습자들 74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대학 입학 시 영어 성적을 반영하여 분반을 구성하였다. 주로 고등학교 전체 영어교과목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영어 능숙도에 따라 구별된 하위집단(Level 1)과 상위집단(Level 3)으로 나누어져 수준별 교재와 차별화된 수업 방식이 진행되었다. 하위집단은 주로 미술대학 소속의 학생들로 남학생 8명, 여학생 33명으로 총 41명이다. 상위집단은 주로 인문국제대학 소속의 학생들로 남학생 17명, 여학생 16명으로 총 33명이다. 두 집단 모두의 학습자 평균 연령은 20~22세이며,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으며 국내 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3.2. 연구 도구 및 절차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비명시적 언어규칙에 대한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 도구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대표적인 비명시적 네 가지 언어현상을 바탕으로 한 설문지 총4개로 구성되었다. 즉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설문2-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설문3-추상명사의 가산성, 설문4-복합명사의 병렬구조이다. 전체 설문지 1~4의 구성 영역과 양식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설문지 종류 및 구성 내용

설문 종류	설문 영역	설문 내용	문항 수
설문 1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영어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관사 a/an, the를 선택하게 하고, 만약 관사가 불필요하다면 ∅ 체크하도록 한다.	20
설문 2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영어로 A, B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밑줄 친 추상명사의 쓰임(단수 또는 복수)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O, 쓰임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면 X를 표시하도록 한다.	10
설문 3	추상명사의 가산성	영어 문장 빈칸에 추상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 두 개를 제시하고, 문장 의미상 알맞은 형태를 선택하도록 한다.	10
설문 4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영어 문장에서 밑줄 친 복합명사(명사1 and 명사2)의 어휘 순서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하도록 한다.	10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에 관한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

이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쓰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다.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사용에 고유명사의 의미 범주에 따라 명시적 규칙이 있어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경우(강, 사막, 바다, 해양, 산과 같은 자연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잘 알려진 산, 도시 부근의 만, 해변, 공원, 도시나 거리 등 인공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되는 영어 문장 10문항, 그리고 같은 고유명사의 의미범주(언덕, 다리, 도로, 궁궐, 홀, 대성당, 호텔, 극장 등의 이름)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정관사 'the' 사용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즉 비명시적 경우에 해당되는 영어 문장 10문항으로 설문1은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참여자에게 영어 문장에서 빈칸에 알맞은 관사 a/an, the를 선택하게 하고, 만약 관사가 불필요하다면 ∅ 체크하도록 한다.

설문2-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에 관한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에서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의 쓰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영어 문장에서 의미에 따라 물질명사가 단수 또는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chocolate, fruit, food, vegetables, candies)에 해당되는 10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참여자에게 A, B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밑줄 친 추상명사의 쓰임(단수 또는 복수)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O, 쓰임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면 X를 표시하도록 한다.

설문3-추상명사의 가산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에서 추상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단수와 복수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영어 문장의 빈칸에 추상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를 제시(pleasure, marriage, hope, time, information, pain, joy, crime, experience)하는 형식의 10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참여자에게 영어 문장 빈칸에 추상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 두 개 중에서 문장 의미상 알맞은 형태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한다.

설문4-복합명사의 병렬구조에 관한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에서 복합명사 '명사1 and 명사2' 사용 쓰임에 관한 자연스러운 영어 명

사 순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영어 문장 빈칸에 영어 식재료에 관한 복합명사를 제시(honey and milk/milk and honey, fish and chips/ chips and fish, salt and pepper/ pepper and salt)하는 형식의 10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참여자에게 영어 문장에서 밑줄 친 복합명사(명사1 and 명사2)의 어휘 순서 중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도록 한다.

설문 실시 방식은 한 학기의 교양강좌 영어수업의 후반부 단계인 13주차에 설문1과 설문2 두 가지를 실시하고, 14주차에 설문3과 설문4 두 가지를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게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은 주로 제시된 단어 중에 선택하는 객관식 유형이다. 설문 응시시간은 설문1(20문항)과 설문2(10문항)의 경우 15분, 설문3(10문항)과 설문4(10문항)는 10분의 제한을 주었다. 그리고 설문내용의 영문법은 영어 수업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개인별 언어 능숙도에 따른 비명시적 언어규칙에 대한 습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설문 분석은 설문1, 2, 3, 4를 시행한 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집단 간 수행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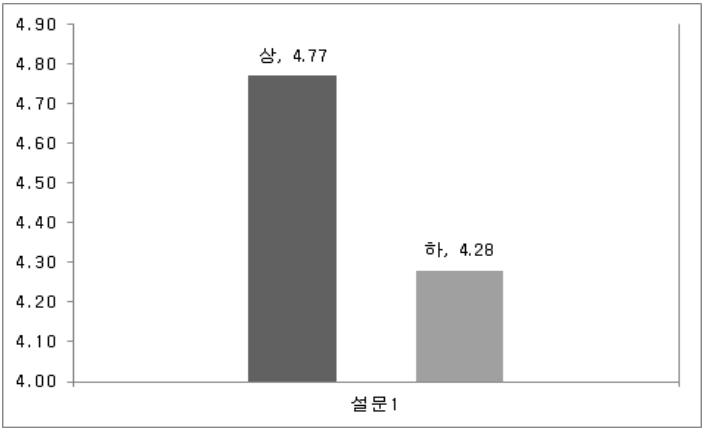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설문1의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에 있어,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올바른 사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은 총20문항으로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 10문항과 비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 10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영어 학습 능력 수준에 따라 상, 하위집단 구분하여, 설문 응답의 집단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설문1의 총20문항을 10점으로 환산하여 상위집단 33명은 평균이 4.77, 하위집단 41명은 4.28로 상위집단의 정답 평균이 0.49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설문1- 상, 하위 집단의 평균 비교



그리고 설문1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별 명시적인 규칙이 있는 경우와 비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의 정답률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상위집단은 정관사과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50.6%)가 규칙이 없는 경우(46.7%)보다 정답률이 3.9%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하위집단은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41.2%)와 규칙이 없는 경우(42.9%)로 정답률 차이가 1.7%로 차이가 더 적다. 이런 결과는 하위집단의 경우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의 문법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규칙의 유무와 상관없이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상위집단은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정답률이 더 높다. 이것은 영어 학습자들은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어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의 명시적 규칙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설문1- 설문문항 유형 및 정답률 비교

설문문항 유형 설문문항 유형	설문문항 유형에 따른 집단 별 정답률	
	상위집단(N=33)	하위집단(N=41)
A.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이 있는 경우	50.6%	41.2%
B.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이 없는 경우	46.7%	42.9%

그리고 다음 〈표3〉은 설문1의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명시적 규칙과 비명시적 규칙이 있는 전체 문항에 대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차이의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상, 하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상위:4.77, 하위:4.28)는 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 수준(양쪽)은 t=1.763이고 p=.082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1-상, 하위집단 간 차이 비교

집단	N (참여자)	M (평균)	SD (표준편차)	표준오차평균	t	df (자유도)	p (유의수준)
상위	33	4.77	1.32	.23	1.763	72	.082
하위	41	4.28	1.07	.16			

($^{*}p < 0.05$ $^{**}p < 0.01$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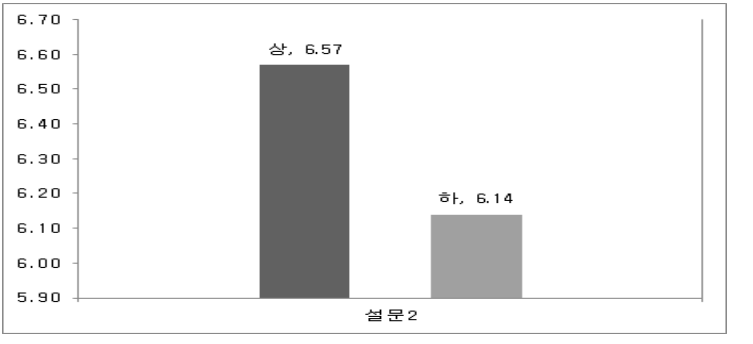
따라서 설문1의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연구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언어 발달단계가 높다하더라고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인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목표어 문법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4.2. 설문2-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설문2의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연구의 설문은 총10문항으로 영어 문장의 의미에 따라 물질명사 chocolate, candy, fruit, vegetable 등의 복수형 사용 유무에 따른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인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 내용의 상, 하위집단 간의 정답률을 보면 다음 〈그림2〉와 같다. 설문2의 총10문항에 따른 상위집단 33명은 평균이 6.57, 하위집단 41명은 6.14로 상위집단의 정답 평균이 0.37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2의 집단 간 차이는 앞선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습득의 집단 간 차이(0.49) 보다 더 적다는 알 수 있다.

〈그림 2〉 설문2- 상, 하위 집단 간 평균 비교



그리고 다음 〈표4〉는 설문2의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에 대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상, 하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상위:6.57, 하위:6.14)는 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수준(양쪽)은 t=.972이고 p=.33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설문2-상, 하위집단 간 차이 비교

집단	N (참여자)	M (평균)	SD (표준편차)	표준 오차 평균	*t*	*df* (자유도)	*p* (유의수준)
상위	33	6.57	1.82	.31	.972	72	.335
하위	41	6.14	1.94	.30			

(*p < 0.05 **p < 0.01 ***p<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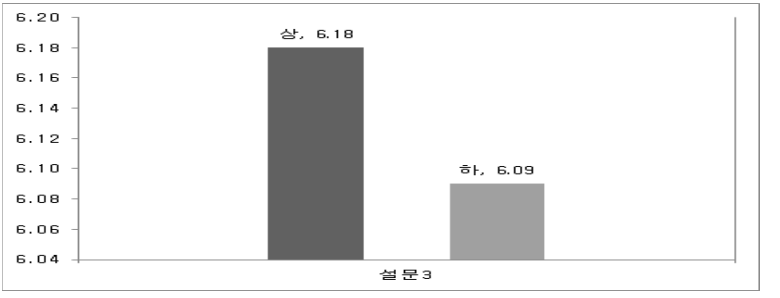
따라서 설문2의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연구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언어 발달단계가 높다하더라고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인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은 설문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목표어 문법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4.3. 설문3-추상명사의 가산성

설문3의 추상명사의 가선성 연구의 설문은 총10문항으로 영어 추상명사 pleasure, marriage, hope, time, information, pain, joy, childhood, crime, experience 등이 문장에서 단수와 복수 형태로 사용되는 사례를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 내용의 상, 하위집단 간의 정답률을 보면 다음 〈그림3〉와 같다. 설문3의 총10문항에 따른 상위집단 33명은 평균이 6.18, 하위집단 41명은 6.09로 상위집단의 정답 평균이 0.09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3의 집단 간 차이는 앞선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습득의 집단 간 차이(0.49), 설문2-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집단 간 차이(0.37)보다 더 적다는 알 수 있다.

〈그림 3〉 설문3- 상, 하위 집단 간 평균 비교



그리고 다음 〈표5〉는 설문3의 추상명사 가산성 연구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상, 하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상위:6.18, 하위:6.09)는 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 수준(양쪽)은 t=.200이고 p=.842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설문3-상, 하위집단 간 차이 비교

집단	N (참여자)	M (평균)	SD (표준편차)	표준오차평균	t	df (자유도)	p (유의수준)
상위	33	6.18	1.57	.27	.200	72	.842
하위	41	6.09	1.95	.30			

(*p < 0.05 **p < 0.01 ***p<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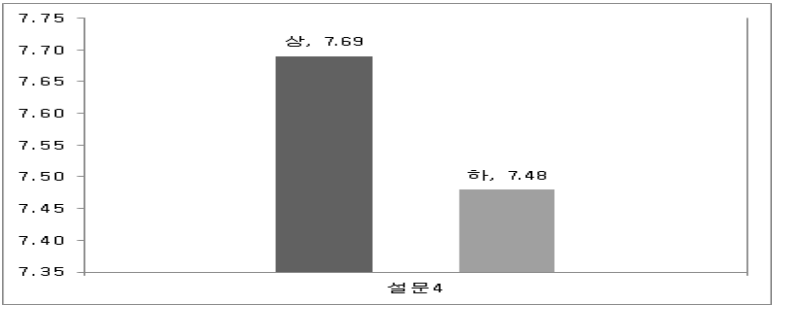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설문3의 추상명사의 가산성에 관한 연구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언어 발달단계가 높다하더라고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인 추상명사의 가산성은 앞선 설문1, 설문2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목표어 문법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4.4. 설문4-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설문4의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연구는 총10문항으로 영어의 음식을 나타내는 두 개의 명사 milk and honey, fish and chips, meat and potatoes 의 자연스러운 어휘 순서를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 내용의 상, 하위집단 간의 정답률을 보면 다음 〈그림4〉와 같다. 설문4의 총10문항에 따른 상위집단 33명은 평균이 7.69, 하위집단 41명은 7.48로 상위집단의 정답 평균이 0.21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4의 집단 간 차이는 앞선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습득의 집단 간 차이(0.49), 설문2-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집단 간 차이(0.37)보다 더 적지만 앞선 설문3-추상명사 가산성 사용 연구 집단 간 차이(0.09) 보다는 차이가 더 많다.

〈그림 4〉 설문4- 상, 하위 집단 간 평균 비교



그리고 다음 〈표6〉는 설문4의 복합명사 병렬구조 사용 연구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상, 하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상위:7.69, 하위:7.48)는 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 수준(양쪽)은 t=.564이고 p=.57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설문4-상, 하위집단 간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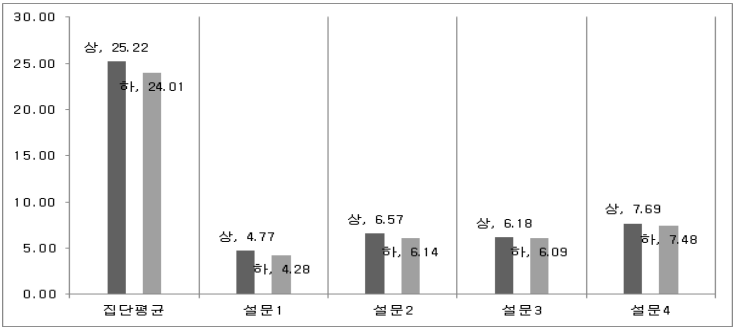
집단	N (참여자)	M (평균)	SD (표준편차)	표준오차평균	*t*	*df* (자유도)	*p* (유의수준)
상위	33	7.69	1.70	.29	.564	72	.575
하위	41	7.48	1.48	.23			

(*p 〈 0.05 **p 〈 0.01 ***p〈 0.001)

마찬가지로 설문4의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연구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습득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언어 발달단계가 높다하더라고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인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역시 앞선 설문1, 설문2, 설문3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목표어 문법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전체 설문1, 2, 3, 4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 〈그림5〉과 같다. 첫 번째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습득(상위집단:4.77, 하위집단:4.28-평균차이:0.49), 두 번째 설문2-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집단 간 차이(상위집단:6.57, 하위집단:6.14-평균차이:0.37), 세 번째 설문3-추상명사 가산성 연구 집단 간 차이(상위집단:7.69, 하위집단:7.48-평균차이:0.21), 네 번째 설문4-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연구 집단 간 차이(상위집단:7.69, 하위집단:7.48-평균차이:0.12)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1, 2, 3, 4의 네 가지 모든 연구 합산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평균 차이는 전체 40점 기준으로 상위집단은 25.22, 하위집단은 24.01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1.21로 나타나서 네 가지 모든 설문의 합산도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설문1, 2, 3, 4- 상, 하위 집단 간 평균 비교



그리고 집단 간 설문 영역별 정답률 순위를 비교하면 다음 〈표7〉과 같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 동일한 설문 영역에서 같은 정답률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순위1은 설문4-복합명사의 병렬구조, 순위2는 설문2-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순위3은 설문3-추상명사의 가산성, 순위4는 설문1-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은 언어 습득의 발달 수준과 상관없이 앞서 살펴 본 4가지 비명시적 언어현상 중 복합명사의 병렬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7〉 집단 간 설문 영역별 정답률 순위 비교

정답률 순위	1	2	3	4
설문 종류	설문4	설문2	설문3	설문 1
설문 영역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추상명사의 가산성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A. 상위집단 정답률	7.69	6.57	6.18	4.77
B. 하위집단 정답률	7.48	6.14	6.09	4.28

다음 〈표8〉는 설문1, 2, 3, 4의 모든 설문 합산에 대한 두 집단의 습득 정도를 보기 위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설문을 합산한 결과도 상, 하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상위:25.22, 하위:24.01)는 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 수준(양쪽)은 t=1.475이고 p=.14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설문1, 2, 3, 4 전체 -상, 하위집단 간 차이 비교

집단	N (참여자)	M (평균)	SD (표준편차)	표준 오차 평균	t	df (자유도)	p (유의수준)
상위	33	25.22	3,64	.63	1.475	72	.145
하위	41	24.01	3.42	.53			

(*p < 0.05 **p < 0.01 ***p< 0.001)

따라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인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추상명사의 가산성, 복합명사의 병렬구조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 영어 발달단계가 높은 학습자들과 낮은 학습자들 간의 습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목표어 발달 단계가 높은 학습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비명시적인 언어현상들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언어 발달단계에 따라 명시적인 문법 규칙이 없는 비명시적인 언어 항목인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물질명사의 단수와 복수 사용, 추상명사의 가산성, 그리고 복합명사의 병렬구조에 관한 네 가지 언어현상 습득 정도를 살펴보았다.

앞선 연구수행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언어 습득 발달단계가 높은 상위집단과 낮은 하위집단의 비명시적 언어규칙 습득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영어의 발달단계가 높은 학습자들이라고 하더라고 목표어의 비명시적인 문법의 언어항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수준과는 상관없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 비명시적인 언어항목 간의 습득의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상위와 하위 두 집단 모두 비명시적 언어현상 중에 복합명사의 병렬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물질명사의 단수 복수 사용, 이어 추상명사의 가산성, 마지막으로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공기현상 순으로 습득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학습 수준 즉 발달단계에 따라 비명시적 언어 항목별로 습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령 가장 적은 또는 많은 오류를 보이는 언어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 목적이 영어 발달 단계에 따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의 습득 정도를 설문의 정답률 위주로 살펴보다보니, 연구결과에서 두 집단 간의 오류 패턴이나 유형 분석이 미비한 것이 연구 한계점으로 남는다.

다섯째, 한국의 영어 교육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비명시적인 언어현상의 습득 정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영어의 비명시적 언어현상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습득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내용은 추후에 제2언어 습득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비명시적인 언어 현상의 습득 과정의 효과적인 교수법 기반 마련의 선행 자료로서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ABSTRACT]

An Analysis of Korean English Learners' Acquisition of No Simple Rules In Context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Choi, Jeong A(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quisition of English by Korean college students by the extent of their knowledge of linguistic items without simple rules in context, and in particular to examine the co-occurrence of the definite article with proper nouns, singular and plural use of material nouns, countability in abstract nouns, and the order of the parallel structure of compound nouns.

To this e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of English were divided into groups with higher and lower levels of such knowledge. Four questionnaires on related inexplicit linguistic items were administered, to measure participants' degree of acquis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learning performed better when dealing with linguistic items that do not have explicit grammar rules of English. However, statistical analysi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Korean learners of English had difficulty in acquiring non-explicit linguistic items even when their knowledge of the target words was at a high level. Due to the lack of research on language items without explicit grammatical rules in English, this study will serve as a

useful resource for devising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such grammatical elements.

Key words: inexplicit linguistic items, co-occurrence of the definite article with proper nouns, countability in abstract nouns, singular and plural of material nouns, parallel structure of compound nouns

[참고문헌]

■ 단행본

Herschensohn, J., 『The Second Time Around Minimalism and L2 Acquisition』, vol. 21, John Benjamins Publishing, 2000.

Ko, H. et al., 『L2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by Korean Speakers, Handbook of East Asian psycholinguistics: Kor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286-304.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은주, 「한국 영어학습자의 영어 추상명사의 가산성 판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수지,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영어 현재완료와 과거시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신은자,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시제 습득에 관한 모국어 전이 역할: 과거와 현재완료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종근,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관사 습득에 관한 연구」, 21세기 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2009. 76-81면.

최공주, 「영어의 현재완료와 과거시제 연구」, 목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최샛별, 「한국인 고등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관사 습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최정아,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비명시적 문법 교육 연구: 영어 관사와 추상명사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79집, 신영어영문학회, 2021. 165-195면.

Dekeyser, R, M.,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2(4), 2003. pp. 499-533.

Ellis, R., The structural syllabu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27(1), 1993. pp. 91-113.

Ellis, R., Modelling learning difficulty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The differential contributions of implicit and explicit knowledge. *Applied Linguistics*, 27(3), 2006. pp. 431-463.

Hulstijn, J. H., & de Graaff, R., Under what conditions does explicit knowledge of a second language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implicit knowledge? A research proposal. *AILA Review*, 11, 1994. pp. 97-114.

Lee, Y-S., Conceptual deviance as a cause of fossilization in performance of Korean advanced learners of English. *Linguistic Research*, 32, 2015. pp. 33-35.

Moeller, A, K. & Ketsman, O., Can we learn a language without rules?, In Melanie Bloom & Carolyn Gascoigne (eds.), Vision for 2010: Developing Global Competence, 2010. pp. 91-108.

접수일: 2022.04.10. 총평일: 2022.04.25. 게재확정: 2022.04.28.